

第23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 長山 들 노래



全羅南道 新安郡

리미클

89 수 /

리미클  
동수

1월 10일

리미클인

리미클

리미클인

# 長山 들노래 解説

多島海의 海金剛이라고 일컫는 新安郡의 여러 섬에는 예로부터 海島的 삶에 대한 고달픔과 勞動의 피로를 덜고 作業의 能率을 올리기 위한 노래들이 많이 불리워져 왔다.

陸地에서 들을 수 없는 長山島 農謠는 島嶼的 特有的 가락으로 이어진 들노래다. 팽과리, 징, 장고, 북, 못방구의 장단에 맞추어 불리워지는 이 들노래의 構成은 마을에서 논밭으로 나가면서 부르는 길꼬내기, 모판에서 모를 찌며 부르는 모찌는 소리,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모심는 소리, 논맬때 부르는 논매기 소리, 그해 農事壯元을 소위에 태우고 한바탕 노는 壯元놀이로 構成되어 있다.

각 마당마다 그 가락이 獨特하고 멋스러워서 南道農謠의 多樣함과 優秀性을 보여주고 있다.

# 農謠 歌 辭

## 1. 길 꼬 내 기

- <후렴> 에~히여~희여라~아이고 건네 농사야~에헤야~
- 오란데는 밤에 밤에만 가고 동네술맛 술집은 아이고 낮에만 간다.
- 잔등너머 살마주는 앵두같이 같이만 아이고 붉어나 졌네
- 저달뒤에 저별만 바라 달만 자꾸 잡고서 아이고 희롱만 한다.

## 2. 모찌는소리 (늦은 소리)

- <후렴> 아~아화~아라~아 머히여
- 이때는 어느 땐고 녹음방초 시절이라
- 이여처 디여처 와락 와락 무어나 내세
- 소리로 봐서 맞이 말고 일거리로 봐서 맞아 주시오
- 천금 같은 두팔개로 밀었다 단혔다 무어나 내세.
- 아나 농부야 말들어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농사  
장고  
북  
못방구  
팽과리  
징

남도농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리미클

후렴  
에~히여~

장고 북  
북과리  
팽과리  
징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기소리  
한바탕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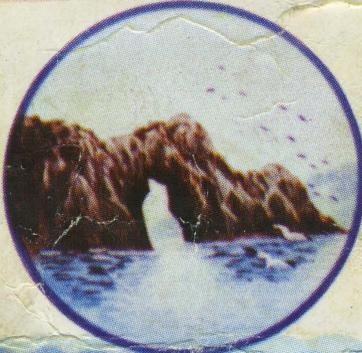


— 400萬의 和合·躍進 新全南 —

신안군

홍도 관광 ←

해저보물 →



신안군

세계 제일의

김 맛 새우젓



— 15萬의 和合·福祉 新安 —